

긴급 점검 - 지자체 파산제

중·비약빈 부르는 인구 위주 지방정책

# 인구 적은 호남 예산지원 줄어... 낙후 갈수록 심화

노무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지역의 낙후 정도를 증시했다면 그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책인 '5+2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등은 사실상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인구 위주 지방정책은 인구 규모 면에서 영남이나 충청에 뒤지는 호남의 낙후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을 공고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전남·전북의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낮고 지방재정 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이러한 지속적인 중앙정부의 '지방 불

## MB정부 '5+2' 예산 영남이 호남의 2배 불균형 정책 박근혜 정부서도 계속 이어져 국비예산 배분 땀 낙후도 최우선 고려해야

균형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19일 전남도, 전남발전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의 5+2 광역경제권은 인구 500만명을 기준으로 경제권을 나눠 선도사업에 대해 대규모 예산을 지원했다.

호남은 1개의 광역권으로 묶인 바

만, 영남은 대경권과 동남권으로 2개로 분리됐으며,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도 영남에 편중됐다. 대경권이 3개, 동남권이 2개 등 모두 5개의 신규 프로젝트가 받았지만 호남은 고작 1개에 불과했다. 이 같은 불균형 정책은 '예산 차별'을 초래했다.

1단계(2009~2011년) 동안 호남권

에는 1809억원이 투입되는데 그쳤지만, 대경권 1444억원, 동남권 1525억원 등 영남권에는 무려 2969억원의 예산이 쏟아졌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해당하는 2단계(2012~2014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호남권 1800억원과 똑같은 규모가 대경권과 동남권에 지원돼 3600억원으로, 2배의 예산이 영남에 집중된 것이다.

이 같은 불균형 정책 탓에 호남은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정부가 조사한 지역낙후도 지수는 광주 0.204, 전남 -1.086, 전북 -0.774로, 각각 광역시와 도 가운데 하위권을 맴돌았다. 특히 전남은 전국 최하위로, 경남(0.121), 경북(-0.504)은 물론 충남(-0.187), 충북(-0.255), 심지어 강원(-0.672)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은 낙후도 지수가 2.074이지만, 지방은 -2.075로, 수도권과의 격차도 여전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방정책 기조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광역경제권을 폐지, 시·도 및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지역행복생활

활권'을 구성하고 자체적인 지역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전국 각 시·도가 생활권 설정에 착수했으며, 모두 50~60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1년에 모두 350억원의 예산으로, 권역별로 5억~6억원 정도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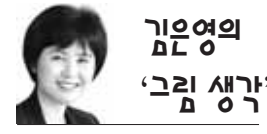
그러나 문제는 권역 구성의 1차 기준이 인구로, 인구가 많은 영남의 권역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다 권역별 사업에 대한 평가도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구조여서 호남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지역 낙후 정도에 따라 지원 규모를 조정하는 절차도 없으며, 투입되는 국비에 맞춰 지방비도 내야해 '가난한' 지자체들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노경수 광주대 교수는 "모든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듯이 기본적으로 국비 예산의 배분기준은 낙후 정도가 중요한 요인이어야 한다"며 "현재의 지방정책은 자주 바뀌고 예산 규모도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등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휘둘리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스케이트 타는 목사님의 발랄한 회전



(63) 소치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소치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 소식으로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다. 일찌감치 전설과 영웅이 되어 버린 선수들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넘어진 선수들을 보면서 갈채와 환호, 탄식과 안타까움으로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는 것 같다. 사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는 무대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서양미술에서는 겨울 풍경으로 스케이트를 타는 그림들이 곧잘 등장한다. 북유럽의 경우 언 강이나 빙판 얼어붙은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어서인지 겨울 풍경으로 더 각별했던 것 같다.

헨리 레이번(1756~1823)의 작품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로버트 위커(1755~1808) 목사이다. 겨울철이면 호수 전체가 얼어붙은 더덩스턴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즐겼던 위커목사는 스포츠 광으로 애드버러 스케이트 클럽의 회원이었다고 한다. 검은 사제복의 성직자와 발랄한 느낌의 스케이트가 얼핏 잘 어울려 보이진 않지만 진지한 표정, 두 손은 가슴에 걸쳐 안은 우아한 포스가 경건해 보인다.

빙판에 새겨진 스케이트 날 자국을 보니 우리 선수들이 승리의 꿈을 바닥에 새긴 소치의 아틀레아 경기장이 떠올라 가슴 벅차오른다.

작품 속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남자는 스코틀랜드 애드버러시의 로버트 위커(1755~1808) 목사이다. 겨울철이면 호수 전체가 얼어붙은 더덩스턴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즐겼던 위커목사는 스포츠 광으로 애드버러 스케이트 클럽의 회원이었다고 한다. 검은 사제복의 성직자와 발랄한 느낌의 스케이트가 얼핏 잘 어울려 보이진 않지만 진지한 표정, 두 손은 가슴에 걸쳐 안은 우아한 포스가 경건해 보인다.

빙판에 새겨진 스케이트 날 자국을 보니 우리 선수들이 승리의 꿈을 바닥에 새긴 소치의 아틀레아 경기장이 떠올라 가슴 벅차오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 “박주선 安신당행을 막아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기초의회 의장단이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의 민주당 입당을 공식 권유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을 사이에 놓고 고민에 빠진 박 의원의 결심에 따라 '호남 정치 1번지' 동구의 선거판이 요동칠 수 있어 이 지역 민주당 기초의원들이 사전 진화에 나선 것이다.

19일 채명희 동구의회 의장은 "광주지역 5개 구의회 의장단이 이 같이 결정하고, 조만간 박 의원을 직접 만나 민주당 입당을 권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 구의회 의장단은 우선, 강은태 광주시장 등을 만나 박 의원의 '민주당행'에 대한 의장단의 생각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민주당

### 민주당 소속 광주 기초의회 의장단 민주당 권유

### 새정치연합 입당 땀 동구 연쇄 이동 불가피

을 탈당한 뒤 최근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행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만약, 박 의원이 새정치연합행을 선택한다면 동구의회·동구청·시의회 등 지역정가에서 연쇄 파동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동구의회를 중심으로 박 의원과 거취를 함께하겠다는 기초의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동구의회는 7명의 의원 중 5명이 민주당으로, 박 의원의 결정에 따라 자칫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선거 구도는 더욱 복잡해져 의장단이 사전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주선 의원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전현직 기초단체장·지방의원들과의 동반 새정치연합행, 안철수 의원 측에 공동대표 요구, 안철수 신당 광주시장후보설 등이 지역정치권에 떠돌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가 박 의원과 오찬 회동을 갖는 등 박 의원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고, 새정치연합도 호남에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박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거리의 민주당 "특검 관철·기초공천 폐지"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관철과 간첩조작사건 규탄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시·도당 공천심사위 구성 '박차'

### 전남도당, 이윤석 공심위원장 등 15명 구성 의결

### 광주시당, 국회의원들 위원 구성 이견...진통 예상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전남도당은 지난 18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이윤석 도당위원장을 공심위원장으로 하는 등 15명으로 구성된 공심위 구성을 의결했다. 공심위원에는 당헌·당규 및 당의 방침에 따라 외부인사가 50% 이상 됐고, 여성도 30%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성안은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광주시당도 외유 중인 임내현 시장

위원장이 귀국하는 오는 22일 직후에 국회의원단 모임을 하고 의견 절충을 한 뒤, 곧바로 상무위원회를 열어 공심위 구성을 의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심위원 구성을 놓고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공심위 구성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강기정·김동철·장병완·박해자 의원이 만나 시장 지명선거기획단(단장 김동철 의원)이 마련한 시장공심위 구성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의 반대로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이다.

기획단은 중앙당의 혁신공천 방침

에 맞춰 외부인사 50%, 여성 30%, 청년 10% 등으로 하는 공심위 구성안을 마련하는 한편 위원장도 외부인사를 영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위원장으로 외부인사의 영입에 대해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19일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상무위에서 찬반 표결을 시도하더라도 당헌·당규에 정한 시일 내에 공심위 구성을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당헌·규에 따르면 시·도당 공심위는 선거(6월4일) 100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당 공심위는 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 공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박지영기자 jipark@kwangju.co.kr

**Korean can do! KORANDO**

**국가대표 SUV 코란도가 대한민국의 파이팅을 기원합니다!**

RECREATION MACHINE! **KORANDO SPORTS**

RECREATION Basecamp **KORANDO TURISMO**

벤츠 자동변속기 적용 코란도 스포츠 탄생 (487cc 2014년형)

Urban Adventure **NEW KORANDO**

<b>구입 문의</b>	• 광주권 : 광주중앙 529-0003	서광주 383-3434	광주중앙 952-3330	북광주 971-0990	광주동남 655-4001	동광주 515-1900
	• 전남권 : 순천 745-3666	순천중앙 723-7100	신여수 654-5522	목포중앙 277-8000	무안 454-0099	화순 371-3555
	나주 334-2727	강진 433-3100	해남 537-3100	담양 383-5811	장성 395-0007	정읍 863-2600
	고흥 835-5050	여천 685-4800	보성 852-2892	광림 761-8900	동광림 791-0071	영광 353-9500

• 쌍용자동차와 미래를 함께 할 쌍용가족을 모집합니다. - 판매수수료 + 인센티브 + 정착지원금 - 매일 민족활동 지원금 추가 지급 - 판매수수료 해외모토쇼 참가 - (광고/공수) www.smotorecruit.co.kr